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 **축복교회**



2024년 3월 17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온 맘 다해 Born again	Behold
기도		장보라 자매
성경봉독	사도행전 20장 13 - 24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Born again	다같이
봉헌기도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강성경 자매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우동정
 - 석제우, 최신영 부부의 아기(뽀뽀이)가 4월에 태어납니다.
 - 주한나 자매의 결혼식이 3월 30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3. 교회 / 청년부 소식
 - 오늘 친교 | 안태훈 형제님이 준비하였습니다.
 - 오늘 친교 후 뒷정리는 토복셀 (한솔셀) 입니다.
 - 어제 토요일 3월 16일에는 밀알 봉사가 있었습니다.
 - 3월 25일 - 3월 3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 3월 29일 성금요일 특별예배가 있습니다.
 - 3월 31일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 성금요일 / 부활절 특송 지원 받습니다. 개인, 셀별,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실 분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주일에 다함께 단체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 찬양집회 포스터를 찾아라! 1등 수상자는 유용한 형제입니다. 축하합니다! 광고시간에 1,2,3등 발표와 함께 상품전달을 하겠습니다.
 - 4월 27일에 청년부 하이킹을 갑니다.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셀에서 먼저 장소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3/17	장보라	토복셀
3/24	송강현	은평셀
3/31	부활주일 연합예배	다함께
4/7	강성경	깊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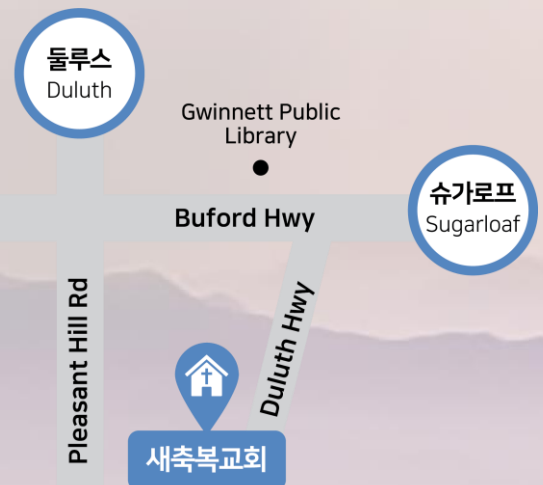
주일 장년예배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레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20240317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20장 13-24절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첫째, 1. 하나님과의 독대는 우리의 영혼을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도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와
중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경험
합니다.

드로아에서 일곱날을 머물렀던 바울은 이제 그 곳을 떠나 잇소로 이
동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바울은 잇소까지 혼자서 걸어
가고, 일행들은 배를 태워 보내게 됩니다.

(행 20: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잇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
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거리는 65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전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가는 길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야 했다면, 그 일이 기록되어 있었을텐데, 그런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홀로 65 km 를 걷는 이 길 위에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의 여운을 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일행도 받았던 유두고의 사건에서 받았던 위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 자체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한가지 진리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골 3: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참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그 존재가 속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다가올 고난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행 20: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 20: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그 예고를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시는 뜻으로 안이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두고의 사건에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의 광풍을 헤치고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은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유두고의 사건을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길을 걸어감에 앞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주님과 대화의 공간, 대화의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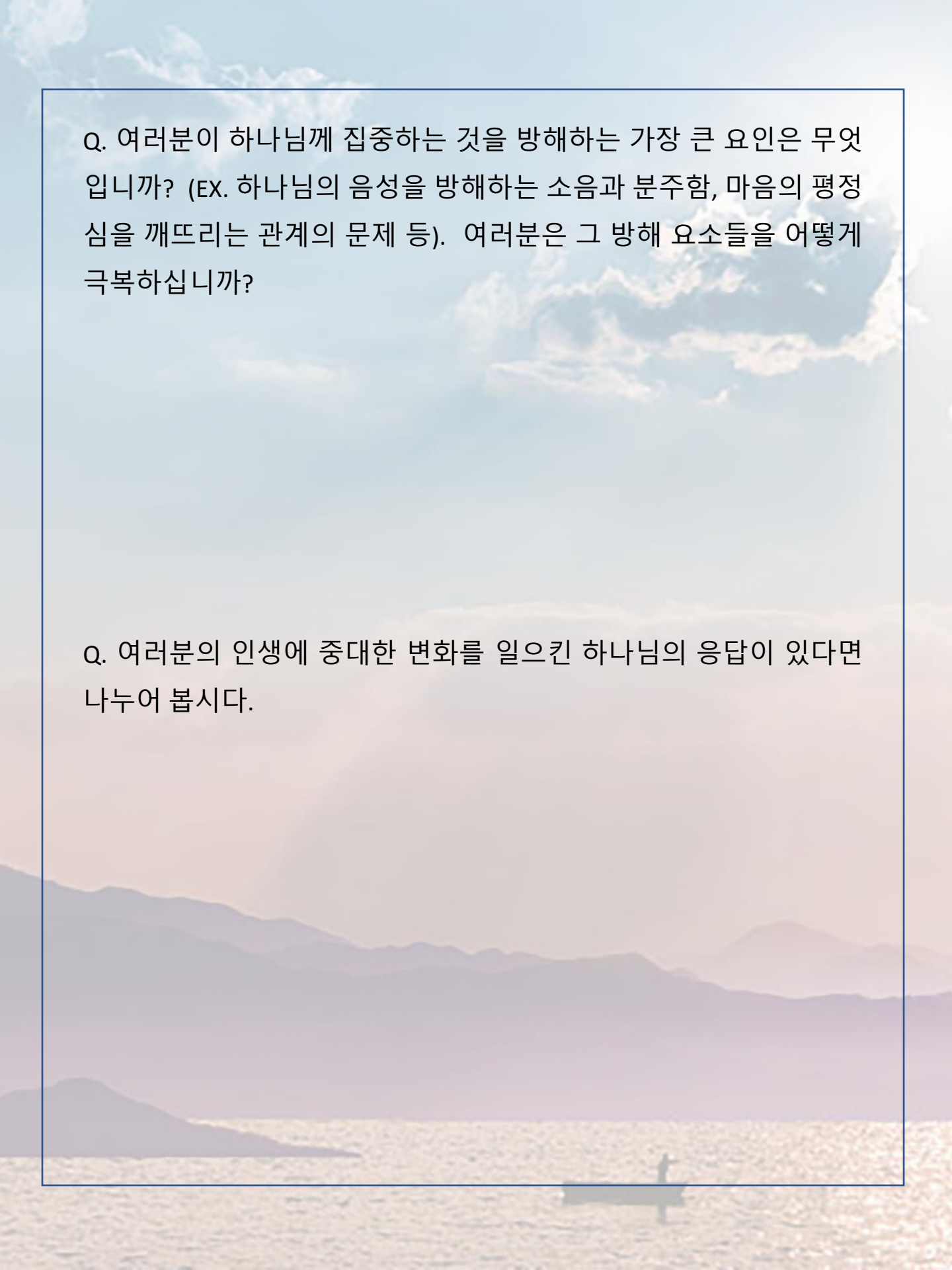
Q.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독대의 시간을 가진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비전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일년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작정하고 구별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구별한 시간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 봅시다.



Q.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
입니까? (EX.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소음과 분주함, 마음의 평정
심을 깨뜨리는 관계의 문제 등). 여러분은 그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Q.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확신하는 사람은 확실한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행 20:14) 바울이 앓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 네로 가서

(행 20: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행 20: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은 다시 앓소에서 일행들을 만나고, 거기서부터는 배에 올라 다시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밀레도 항구에 도착한 바울은 지척 거리에 있는 에베소를 원한다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정든 성도들이 있기에, 그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끝으로 에베소를 방문하기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적인 의무를 앞세웁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는 공적 의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확실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각 지역에서 모금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정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정이나 욕심 혹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 길 끝에 환난을 거쳐 순교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서두르는 것은 순교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을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서둘러 가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빨리 만나고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교회와 사명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을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롬 1:8-11). 그는 그 편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더 빨리 달려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생명의 경주”의 측면에서 자신의 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순교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만, 그만큼 복음의 시계는 앞당겨져서, 많은 사람의 구원이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내 인생에 빨리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세상의 욕심은 우리를 평안이 없이 조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민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느끼고 확신있게 걸어가는 길은 서두름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조급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기에 굳더더기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은 세상적인 조급함에 이끌릴 때와, 하나님께서 주신 초점 안에서 서두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셋째,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집니다.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으니, 그 대표들을 만난 것입니다.

(행 20: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행 20: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행 20: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본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기 삶을 두고 본받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좋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초심을 지킨 바울입니다. 그는 초심만 지킨 것이 아니라, 날이 갈 수록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키워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어제 품었던 헌신 그 이상의 헌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Q. 여러분의 삶 속에 커다란 영적 분수령을 선물해준 영적인 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영향을 여러분에게 주었나요?

Q. 만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나 남겨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Q.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스럽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개선하고 성숙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